

이재명, 여의도·김문수, 서울시청서 대선 ‘피날레’

선거운동 마지막날까지 총력전
이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
이준석·권영국도 표심잡기 사활

6·3 대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에서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하남과 성남, 광명, 서울 강서구를 거쳐 여의도 공원에서 마지막으로 유권자를 만났다.

여의도 공원은 ‘12·3비상계엄’ 이선 포됐을 때 시민들이 물려와 계엄을 저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린 ‘빛의 혁명’의 상징적 장소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마지막 유세 장소가 여의도 광장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빛의 혁명이 시작된 이곳에서, 내란을 종식하고 위기를 극복해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여의도 유세에 앞서 현실 정치 참여를 결심한 성남 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천으로 성과를 만들어 온 총직하고 유능한 일꾼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성남은 소년공 이재명이 고난도 겪었지만 꿈도 키워내고 시민운동가 이재명이 사회변화를 일꾼 곳”이라면서 “저의 정치적 고향 성남에서 국

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란 없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서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 취임 후 무엇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할 것인지’ 생각한 것이 있냐’라는 질문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며 “(대통령 당선 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는 서울시청 앞 광장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피날레 장소에 대해 “시민이 한데 모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광장이고, 약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간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세에는 김 후보와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이 참석해 원팀 통합정부 비전도 발표했다.

신동욱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 단장은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외치지만 물이 다 빠진 구조”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좌절과 침몰을 막고 미래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파이널 유세를 마친 김 후보는 야간에도 청년층이 밀집한 마포구 홍대와 서초구 신논현역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정선 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함께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대신인 호소를 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경기 시흥 한국공학대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었다. 이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유세한 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일대에서 마지막 집중유세를 진행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종로구 혜화역 유세를 시작으로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남역 등을 거쳐 장애인과 노동자, 여성 이슈를 부각했다. 이후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무리 유세를 펼쳤다.

서울=김현수 기자

기사 제보 받습니다 → jndnnews@naver.com
전남매일 독자와 함께 정직한 신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 광주·전남 단체장들, 일제히 투표 독려

기자회견·1인 캠페인 등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이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일제히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투표 독려를,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투표 참여로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시민들의 힘이라면, (광주 대선 역대 최고 투표율 92.4%) 92.5%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면서 “늘 그랬듯 광주는 이번에도 투표하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힘을 보여

주는 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오전 여수시 신동아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캠페인을 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 투표를 전국 1위에 이어 6월 3일 대선 100% 투표 참여로 전남의 자부심과 자력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적었다.

민주당 광주선대위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해야 내란을 극복하고, 광주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민형배·안도걸·정진숙·박균택·전진숙·조인철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당의 승패를 가르는 선거를 넘어 무너진 대

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절체절명의 선거다”며 “45년 전 죽음으로 지켰던 민주주의를 이번에는 투표로 지켜달라. 당당히 이재명을 선택해 우리 모두의 자존심과 광주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의 한 표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광주의 내일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민 모두가 내일 투표장으로 나가 우리가 싸워 지킨 민주주의와 광주를, 그 자존심을, 반드시 지켜내자”고 덧붙였다.

민주당 광주선대위 사전선거 홍보단 50여명은 광주시청에서 5·18민주광장까지 약 10km 구간을 주행하면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김용현 기자

오전 6시~오후 8시 투표…자정께 당선인 윤곽

내일 오전6시 개표 완료 전망 호남권 등 최종 투표율 관심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개표가 시작되며, 이른바 자정께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선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7.4%를 기록해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해 전국 1~3위를 차지한 호남권에 반해 소극적 투표 성향을 보였던 영남권과 전국 평균 투표율에 못미쳤던 수도권, 충청권 유권자들의 본 투표 참여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이번과 같이 보궐선거로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26.06%였고 최종 투표율은 77.2%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6.93%를 기록했지만 최종 투표율은 77.1%에 머물렀다.

다만 이번 대선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지는 만큼 투표율이 80%를 넘어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표는 전국 254곳의 개표소에서 오후 8시 30~40분께부터 시작되며, 개표 참관인은 구·시·군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명씩 배치한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께부터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최종 투표율과 개표 진행 상황, 후보자 간 접전 여부 등에 따라 개표 진행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보궐선거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선 개표 시작 2시간 만인 오후 10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이 뻤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선거 당일 오후 11시 40분께 광화문광장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막판까지 접전이었던 제20대 대선의 경우 이튿날 오전 2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이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4시를 넘겨 당선 소감을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 개표가 4일 오전 6시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선관위원장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대국민담화서 참여 당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면서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

거”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친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해 야망 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선거를 준비

했다”며 지난해 총선 때 도입한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소별로 투표지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선거감판단이 사전투표소, 선거일투표소, 개표소 등 중요한 선거 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가 마무리되면 정확하고 빈틈없이 개표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현대자산운용
UNICORN ETF

UNICORN ETF는 현대자산운용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전략과 노하우를 녹여 운용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현대자산운용의 고유한 ETF 브랜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1308호(2025.4.3.~2028.4.2.)
현대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038호(2025.3.31.~2028.3.31.)

높은위험 ← 투자위험등급 → 낮은위험

1 2 3 4 5 6

2등급 | 높은 위험

반도체 시장에도 봄이 오나 봄

현대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
액티브ETF

#494220

*펀드명: 현대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 액티브 증권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공모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비교자료: FnGuide SK하이닉스밸류체인 지수 *상장일: 2024.11.28. *총 보수(연, %): 0.5(운용회사 0.445, 지정참가회사 0.02, 신탁회사 0.02, 일반사무관리회사 0.015) *환매방법: 장내 매도 / 환매 청구일(T) 기준 납입자산구성내역에 의거하여 T+2일 환매자산 수령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ETF는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운용전략 및 전망은 시장 상황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TF 거래 시 추종하는 벤치마크와의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 거래 수수료가 별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